

양파·쇠고기 '금값'... 장바구니 물가는 고공행진

가뭄에 재배면적 줄고 잦은 질병 주원인

배추·돼지고기도 ↑ ... 정부 발표와 거리

소비자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고 있다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채소와 고기 등 소비자물가가 피부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 크게 오르고 있다. 연말을 맞아 잦은 희석 등으로 즐겨 먹게 되는 돼지고기와 쇠고기 등도 금값이 됐다. 물가가 두드러지게 오른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배추, 양파, 쇠고기, 돼지고기 등이 꼽힌다.

채소와 고기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은 올해 40년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과 잦은 질병으로 가축 사육 두수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0.8%를 찍고서 줄곧 0%대권을 유지하다가 지난 11월 1년여만에 1%로 올라섰다. 0%대 물가의 주된 요인은 국제유가 하락세였다.

하지만 일상에서 자주 사는 농축수산물 물가는 비교적 상승폭이 높다. 일상 생활에서 즐겨 구입하는 농축수산물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낮

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피부와 외 당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올 들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1%대 이하의 상승률을 이어가던 농축수산물 상승률은 가뭄이 심해지기 시작한 5월에 2.7%로 뛰었다.

지난 5~8월 4개월간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 폭(각각 2.7%·4.1%·3.7%·3.4%)은 통계청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집계하는 모든 품목 가운데 가장 컸다.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9월부터 11월까지도 1.7%, 3%, 1.7%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배추는 최근 수년 낮았던 가격 영향으로 올해 재배 면적이 감소한데다 가뭄과 고온 현상으로 출하량이 줄면서 5월부터 가격이 급등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

보에 따르면 올해 월평균 배춧값이 가장 비쌌던 6월에 배추 상품 1포기의 평균 소매가격은 3364원으로 6월 가격으로는 역대 최고다.

6월 배추 물가상승률도 2013년 2월(182.9%) 이후 28개월 만에 가장 높은 90.9%를 기록했다.

양파도 올해 재배면적이 평년보다 줄어든데다가 고온과 가뭄에 따른 작황 부진이 겹쳐 생산량이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양파 가격은 수확 후기인 6월 중순부터 급등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1월 양파 물가상승률은 98.9%에 달했다.

양파 상품 1kg의 월평균 소매가격은 8월 2051원, 9월 2136원, 10월 2170원, 11월 2326원으로 8월부터 현재까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가격도 비쌌다. 올해 한우 가격은 구제역이 있었던 201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비쌌고, 돼지고기 가격은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돼지고기는 5월(7.6%)과 6월(8%) 등 나들이

철에 물가 상승률이 높은 편이었고, 쇠고기는 추석이 있는 9월(9.8%) 10월(12.2%), 11월(11.9%)에 물가가 많이 올랐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캠핑 인기와 정육점형 식당 확산 등으로 수요가 늘지만 사육 두수 감소 등으로 공급이 줄어든 점이 가격 상승 이유로 꼽힌다.

농축수산물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낮아지는 데 구매 빈도가 높다 보니 물가 부담을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농협이 '농업에 대한 오해와 올바른 이해' 보고서에서 통계청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1년 8월 농산물 물가는 전년 같은 달보다 15.9%나 상승하고 소비자물가는 4.7% 올랐다.

그러나 농산물이 전체 물가 상승에 기여한 정도는 6.5%로 공업제품(31.7%), 서비스(55.5%) 등과 비교해 낮았다. 또 농축수산물은 공산품이나 서비스와 달리 날씨 등의 영향으로 등락을 반복해 거저효과에 따라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연남뉴스

주간 증시 포커스

中 변수·美 금리 관망 속

변동성 확대 가능성 낮아

박스권 2000선 등락 전망

지난 주(11월30일~12월 4일)는 대형 이벤트 앞두고 주식 시장 하락했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유럽중앙은행(ECB)의 추가 부양책(3달)이 실망감으로 작용하고 미국 제1연임 의장의 12월 금리인상 발언으로 국내주식시장은 하락세를 연출했다. 또한 MSCI 11월 정기변경으로 구성종목 중에서 CJ E&M, GS리테일, 롯데칠성 등이 편입됐으며 두산인프라코어, 대우조선, LS산전, 현대상선은 제외됐다. 특이한 점은 해외에 상장된 중국 기업(알리바바, 바이두등)이 편입되면서 MSCI EM내 중국 비중이 2.1% 확대 한국비중이 0.4% 감소한걸로 추정된다.

이번 주(12월7일~12월 11일) KOSPI 예상은 1970 ~ 2030 포인트.

상승요인은 중국 경제공약회의, 배당향 프로그램 순매수 유입이며 하락요인은 미 연방 소비 약화 가능성, 미국 금리인상 이슈가 지속한다는 점이다.

유가 감소이나 동결이 정해지면 국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감소시 유가 상승에 따른 정유, 화학, 조선업 등 변동이 예상되던 감소 부결시 재차 유가 하락에 따른 중등 오일머니의 국내 주식시장 이탈지수 등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공약회의에 앞서 발표되는 각종 경기 지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부진한 경제지표는 중국의 수출 감소 및 대내 수요 부진 등 산업경기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과잉 생산 해소와 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상존해 보인다.

10~12월께 예정된 중국 경제공약회의 역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경제공약회의 관심이 되는 이유는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중대기업 정리와 낙후된 구조조정을 통한 공급 측면의 개혁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글로벌 공급과잉 이슈를 줄여 줄 수 있어 보이나 일자리 확보 및 성장률 하락 우려 등을 감안하여 급격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이렇듯 중국 실물 지표 실망감과 구조조정 기대가 혼재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 16일 FOMC 이전 불확실성에 따른 관망 심리도 상존해 있어서 보수적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이런 주(12월7일~12월 11일) KOSPI 예상은 1970 ~ 2030 포인트.

상승요인은 중국 경제공약회의, 배당향 프로그램 순매수 유입이며 하락요인은 미 연방 소비 약화 가능성, 미국 금리인상 이슈가 지속한다는 점이다.

유가 감소이나 동결이 정해지면 국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감소시 유가 상승에 따른 정유, 화학, 조선업 등 변동이 예상되던 감소 부결시 재차 유가 하락에 따른 중등 오일머니의 국내 주식시장 이탈지수 등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공약회의에 앞서 발표되는 각종 경기 지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부진한 경제지표는 중국의 수출 감소 및 대내 수요 부진 등 산업경기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과잉 생산 해소와 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상존해 보인다.

10~12월께 예정된 중국 경제공약회의 역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경제공약회의 관심이 되는 이유는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중대기업 정리와 낙후된 구조조정을 통한 공급 측면의 개혁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글로벌 공급과잉 이슈를 줄여 줄 수 있어 보이나 일자리 확보 및 성장률 하락 우려 등을 감안하여 급격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이렇듯 중국 실물 지표 실망감과 구조조정 기대가 혼재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 16일 FOMC 이전 불확실성에 따른 관망 심리도 상존해 있어서 보수적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이런 주(12월7일~12월 11일) KOSPI 예상은 1970 ~ 2030 포인트.

상승요인은 중국 경제공약회의, 배당향 프로그램 순매수 유입이며 하락요인은 미 연방 소비 약화 가능성, 미국 금리인상 이슈가 지속한다는 점이다.

유가 감소이나 동결이 정해지면 국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감소시 유가 상승에 따른 정유, 화학, 조선업 등 변동이 예상되던 감소 부결시 재차 유가 하락에 따른 중등 오일머니의 국내 주식시장 이탈지수 등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공약회의에 앞서 발표되는 각종 경기 지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부진한 경제지표는 중국의 수출 감소 및 대내 수요 부진 등 산업경기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과잉 생산 해소와 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상존해 보인다.

10~12월께 예정된 중국 경제공약회의 역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경제공약회의 관심이 되는 이유는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중대기업 정리와 낙후된 구조조정을 통한 공급 측면의 개혁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글로벌 공급과잉 이슈를 줄여 줄 수 있어 보이나 일자리 확보 및 성장률 하락 우려 등을 감안하여 급격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이렇듯 중국 실물 지표 실망감과 구조조정 기대가 혼재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 16일 FOMC 이전 불확실성에 따른 관망 심리도 상존해 있어서 보수적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이런 주(12월7일~12월 11일) KOSPI 예상은 1970 ~ 2030 포인트.

상승요인은 중국 경제공약회의, 배당향 프로그램 순매수 유입이며 하락요인은 미 연방 소비 약화 가능성, 미국 금리인상 이슈가 지속한다는 점이다.

유가 감소이나 동결이 정해지면 국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감소시 유가 상승에 따른 정유, 화학, 조선업 등 변동이 예상되던 감소 부결시 재차 유가 하락에 따른 중등 오일머니의 국내 주식시장 이탈지수 등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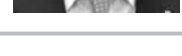
중국 경제공약회의에 앞서 발표되는 각종 경기 지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부진한 경제지표는 중국의 수출 감소 및 대내 수요 부진 등 산업경기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과잉 생산 해소와 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상존해 보인다.

10~12월께 예정된 중국 경제공약회의 역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경제공약회의 관심이 되는 이유는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중대기업 정리와 낙후된 구조조정을 통한 공급 측면의 개혁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글로벌 공급과잉 이슈를 줄여 줄 수 있어 보이나 일자리 확보 및 성장률 하락 우려 등을 감안하여 급격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이렇듯 중국 실물 지표 실망감과 구조조정 기대가 혼재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 16일 FOMC 이전 불확실성에 따른 관망 심리도 상존해 있어서 보수적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윤 자 중 <NH투자증권 광주WMC센터장>



삼성전자, 러시아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5년 연속 1위 ... 휴대전화 부문도 3년 연속 1위

삼성전자가 러시아에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순위 조사에서 5년 연속 1위에 올랐다.

6일 러시아 유력 리서치 기관인 'OMI (Online Market Intelligence)'의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 내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거주 시민 1500명에게 온라인으로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가 20.1%를 얻어 소니(9.6%), 애플(9.5%), 아디다스(8.5%), 나이키(8%)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2014년 같은 조사에서는 18.2%를 얻어 아디다스(11.9%)를 제치고 2013년에는 18.5%로 소니(10.2%)를 눌렀다. 5년 연속 종합 순위 1위를 지켰다.

가전제품 부문에서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7년 연속 1위를 질주했다. 선호도는 32.2%로 2위 보쉬(23.6%)를 따돌렸다.

휴대전화 부문에서도 삼성전자가 31.2%의 선호도로 애플(21.9%)을 누르고 3년 연속 1위를 점했다. TV·오디오·DVD플레이어 부문에서도 39%의 선호도로 5년 연속 1위를 했고 태블릿PC 부문도 33.5%로 2년 연속 1위다.

한편 삼성전자는 1991년부터 볼쇼이 극장을 후원하며 최장수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다. 또 볼쇼이도 문예학을 후원하고 교육 지원 사업인 에듀케이션 포 에브리원(Education for Everyone)·스마트스쿨 등을 진행 중이다. /김대성기자 bigkim@



롯데아울렛 수완점, 화장지 기부 롯데아울렛 수완점(점장 문언배)은 지난 5일 광주 사회적경제 나눔장터에 참여해 화장지 1000롤을 기부했다. 이날 수완호수공원에서 열린 나눔장터 행사에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20여 개 단체가 참가해 생산품의 홍보하고 기부 전달식을 했다. <롯데아울렛 제공>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사건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5타경 3821	1	전도권 전도권 교통2차로, 예이동 5층 502	아파트	65,000,000	미발매	미발매
	2	전도권 전도권 교통2차로, 예이동 5층 502	아파트	65,000,000	미발매	미발매
2015타경 4276	1	전도권 전도권 교통2차로, 예이동 5층 502	아파트	65,000,000	미발매	미발매
	2	전도권 전도권 교통2차로, 예이동 5층 502	아파트	65,000,000	미발매	미발매
2015타경 3303	1	해남군 황산면 현자리 1063-1 568㎡	대	30,251,810	100%	일괄매각, 일부채권
	2	해남군 황산면 현자리 1063-1 568㎡	대	30,251,810	100%	일괄매각, 일부채권
2015타경 3567	1	해남군 개곡면 성진리 288 625㎡	대	23,612,900	100%	일괄매각, 채권
	2	해남군 개곡면 성진리 288 625㎡	대	23,612,900	100%	일괄매각, 채권
2015타경 3723	1	해남군 문내면 고대리 231 340㎡	대	70,920,800	100%	일괄매각
	2	해남군 문내면 고대리 231 340㎡	대	70,920,800	100%	일괄매각
2015타경 3808	1	해남군 문내면 고대리 231 340㎡	대	70,920,800	100%	일괄매각
	2	해남군 문내면 고대리 231 340㎡	대	70,920,800	100%	일괄매각
2015타경 1123	1	해남군 현산면 조산리 539 241㎡	전	80,265,200	100%	일괄매각, 대각외
	2	해남군 현산면 조산리 539 241㎡	전	80,265,200	100%	일괄매각, 대각외
2015타경 7315	1	해남군 현산면 조산리 539 241㎡	전	80,265,200	100%	일괄매각, 대각외
	2	해남군 현산면 조산리 539 241㎡	전	80,265,200	100%	일괄매각, 대각외
2015타경 1840	1	해남군 문내면 흥림리 103 6448㎡	전	58,676,800	100%	일괄매각, 대각외
	2	해남군 문내면 흥림리 103 6448㎡	전	58,676,800	100%	일괄매각, 대각외
2015타경 3211	1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22-5 112㎡	대	15,792,000	100%	일괄매각, 대각외
	2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22-5 112㎡	대	15,792,000	100%	일괄매각, 대각외
2015타경 3228	1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22-5 112㎡	대	15,792,000	100%	일괄매각, 대각외
	2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22-5 112㎡	대	15,792,000	100%	일괄매각, 대각외
2015타경 3273	1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22-5 112㎡	대	15,792,000	100%	일괄매각, 대각외
	2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22-5 112㎡	대	15,792,000	100%	일괄매각, 대각외
2015타경 3389	1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22-5 112㎡	대	15,792,000	100%	일괄매각, 대각외
	2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22-5 112㎡	대	15,792,000	100%	일괄매각, 대각외
2015타경 3433	1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22-5 112㎡	대	15,792,000	100%	일괄매각, 대각외
	2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22-5 112㎡	대	15,792,000	100%	일괄매각, 대각외
2015타경 3457	1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22-5 112㎡	대	15,792,000	100%	일괄매각, 대각외
	2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22-5 112㎡	대	15,792,000	100%	일괄매각, 대각외

사건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5타경 3518	1	해남군 황산면 현자리 1063-1 568㎡	대	30,251,810	100%	일괄매각, 일부채권
	2	해남군 황산면 현자리 1063-1 568㎡	대	30,251,810	100%	일괄매각, 일부채권
2015타경 3570	1	해남군 개곡면 성진리 288 625㎡	대	23,612,900	100%	일괄매각, 채권
	2	해남군 개곡면 성진리 288 625㎡	대	23,612,900	100%	일괄매각, 채권
2015타경 3587	1	해남군 문내면 고대리 231 340㎡	대	70,920,800	100%	일괄매각
	2	해남군 문내면 고대리 231 340㎡	대	70,920,800	100%	일괄매각
2015타경 3624	1	해남군 문내면 고대리 231 340㎡	대	70,920,800	100%	일괄매각
	2	해남군 문내면 고대리 231 340㎡	대	70,920,800	100%	일괄매각
2015타경 3662	1	해남군 현산면 조산리 539 241㎡	전	80,265,200	100%	일괄매각, 대각외
	2	해남군 현산면 조산리 539 241㎡	전	80,265,200	100%	일괄매각, 대각외
2015타경 3723	1	해남군 문내면 흥림리 103 6448㎡	전	58,676,800	100%	일괄매각, 대각외
	2	해남군 문내면 흥림리 103 6448㎡	전	58,676,800	100%	일괄매각, 대각외
2015타경 3792	1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22-5 112㎡	대	15,792,000	100%	일괄매각, 대각외
	2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22-5 112㎡	대	15,792,000	100%	일괄매각, 대각외
2015타경 3815	1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22-5 112㎡	대	15,792,000	100%	일괄매각, 대각외
	2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22-5 112㎡	대	15,792,000	100%	일괄매각, 대각외
2015타경 3860	1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22-5 112㎡	대	15,792,000	100%	일괄매각, 대각외
	2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22-5 112㎡	대	15,792,000	100%	일괄매각, 대각외
2015타경 3877	1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22-5 112㎡	대	15,792,000	100%	일괄매각, 대각외
	2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22-5 112㎡	대	15,792,000	100%	일괄매각, 대각외
2015타경 3938	1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22-5 112㎡	대	15,792,000	100%	일괄매각, 대각외
	2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22-5 112㎡	대	15,792,000	100%	일괄매각, 대각외
2015타경 4153	1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22-5 112㎡	대	15,792,000	100%	일괄매각, 대각외
	2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22-5 112㎡	대	15,792,000	100%	일괄매각, 대각외
2015타경 4191	1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22-5 112㎡	대	15,792,000	100%	일괄매각, 대각외
	2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22-5 112㎡	대	15,792,000	100%	일괄매각, 대각외
2015타경 4214	1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22-5 112㎡	대	15,792,000	100%	일괄매각, 대각외
	2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22-5 112㎡	대	15,792,000	100%	일괄매각, 대각외
2015타경 50025	1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22-5 112㎡	대	15,792,000	100%	일괄매각, 대각외
	2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22-5 112㎡	대	15,792,000	100%	일괄매각, 대각외
2015타경 50231	1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22-5 112㎡	대	15,792,000	100%	일괄매각, 대각외
	2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22-5 112㎡	대	15,792,000	100%	일괄매각, 대각외

사건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5타경 2812	1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22-5 112㎡	대	15,792,000	100%	일괄매각, 대각외
	2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22-5 112㎡	대	15,792,000	100%	일괄매각, 대각외
2015타경 5439	1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22-5 112㎡	대	15,792,000	100%	일괄매각, 대각외
	2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22-5 112㎡	대	15,792,000	100%	일괄매각, 대각외
2015타경 692	1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22-5 112㎡	대	15,792,000	100%	일괄매각, 대각외
	2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22-5 112㎡	대	15,792,000	100%	일괄매각, 대각외
2015타경 908	1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22-5 112㎡	대	15,792,000	100%	일괄매각, 대각외
	2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22-5 112㎡	대	15,792,000	100%	일괄매각, 대각외
2015타경 2485	1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22-5 112㎡	대	15,792,000	100%	일괄매각, 대각외
	2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22-5 112㎡	대	15,792,000	100%	일괄매각, 대각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해남지방법원 법원법정 관공서

2015. 12. 7.